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68호

2025년 9월 28일(다해)

<p>미사 안내</p>	<p>평일</p>	<p>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p>	<p>주일</p>	<p>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p>
<p>연령회</p>		<p>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김미아 헬레나 Cell : 808.291.7811</p>		



오늘의 미사

연중 제26주일

<p>▶ 1독서 : 아모스 예언서 6,1-4-7</p> <p>▶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p> <p>▶ 2독서 : 티모테오 1서 6,11-16</p>	<p>▶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p> <p>▶ 복음 : 루카 16,19-31</p>
--	--

- ① 10월 19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② 10월 19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③ 고해성사는 미사 전후 고해소에서 있습니다.
- ④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 부탁드립니다.
- ⑤ 10월 봉성체 안내
 10월 봉성체는 10월 9일(목, 오전)에 서쪽지역, 10월 10일(금, 오후)에 동쪽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⑥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10월 19일~25일)
- ⑦ 매월 넷째 주 9월 28일(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헌'
- ⑧ 10월 성체강복은 2일 저녁 미사(목요일 7시) 중에 있습니다.
- ⑨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① 교육분과 공지

교리교육 주제

9월 28일(일): 창조주 하느님

10월 5일(일): 구세주 예수그리스도

시간: 오전 9:00, 장소: 예비자 교리실

교리에 관심있는 신자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 ② 10월 4/5일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예물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미사 예물 접수처나 사무실로 10월 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미사 30분전 짧은 연도가 있습니다. (새벽미사는 미사 후)



구역 및 단체

① 성모회 모임

일시: 9월 28(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② 꾸리아 월례 모임

일시: 9월 28(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룸

③ 쉐릭 구역모임

일시: 10월 7(화) 오후 5:30

문의: 이명노 비오(227-5630)

장소: 새신자 교리실

④ 카이무키 구역모임

일시: 10월 12(일) 오후 5:00

문의: 황성자 마리아(220-0822)

장소: 황성자 마리아 자택

※ 2026년 성당 달력광고 접수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의 날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최미근 레지나, 조유호 빈센치오, 조원임 아가다, 서상순 안나
정순희 마리아, 박에릭 즈카르야, 구수연 에스더, 김옥숙 데레사,
성정숙 벨레데타, 김경숙 마리아, 유유자 헬레나, 이영미 세실리아,
임이선 스텔라, 차종임 보나벤뚜라, 김용태 요셉, 김국희 다니엘라,
구형수 안토니오, 김희정 율리안나, 김승호 베니뇨, 정정일 데보라,
김국현 고스마, 이재현 안드레아, 채옥자 헬레나, 최교식 보니파시오,
김성연 야고보, 한강식당, 고하식품

※ 본당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이살린 바울리나, 데레사 오쿠노 / 조안나 스톤



헌금

10월 4/5일 'Ohana in Christ 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9월 20/21일 : \$5,781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80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 헌금	특별헌금		
	\$3,307	\$810	-	\$1,664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흥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

희년 특강 [제 11 강] 희망의 여정으로서의 사순시기

사순 시기는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으로, 단순히 금육과 회개만 강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탈출기)과 깊이 연결된 신학적 의미를 지니며,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느님과 참된 자유를 회복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40일간의 여정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에 집중되며, 세례 서약의 갱신을 통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1. 희망의 신학적 기반: 사순 시기는 부활을 준비하는 교회 전례의 핵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둠(죄)에서 벗어나 빛(부활)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적 순종을 통해 열린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이며,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모범을 통해 희망을 구체화합니다.

2. 이집트 탈출의 상징성: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겪은 유혹과 시련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사순 여정과 유사합니다.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은 단순한 물리적 자유가 아닌 영적 자유의 회복을 의미하며, 율법을 통한 하느님 사랑의 실천은 사순 기간의 기도와 회개로 이어집니다.

3. 그리스도와의 동행: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십자가와 부활)는 구원의 결정적 사건으로, 그분의 희생을 통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동적 구원이 아닌, 인간의 적극적인 응답('예')을 요구합니다. 사순 시기에는 성령의 은총(성사, 기도)을 통해 유혹을 이기고 희망의 불꽃을 지켜야 합니다.

4. 역동적 회개: 사순 시기의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닌, 하느님 사랑의 응답입니다. 로마 미사경본(사순 제1주일 기도)은 이를 '성사적 표지'로 설명하며, 매일의 발걸음이 구원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갖도록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의 생명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희망을 키워줍니다.

5. 실천적 적용: 사순 기간은 금식, 기도, 자선을 통해 물질주의를 넘어 영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들의 수난 중에도 부활을 희망한 것처럼, 현대의 그리스도인도 사회 정의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희망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순 시기는 고통의 과정 속에서도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는 '희망의 훈련장'입니다. 이는 개인적 영적 성장을 넘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며, 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역동적 신앙 행위입니다.

추천영상: YouTube 이병근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희년교리)



알아드립니다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 연중 제26주일 강론 요약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통해, 세상의 가치와 하느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십니다. 부자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집 대문 앞에 있던 가난한 라자로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라자로를 때리거나 해치지 않았지만, 그를 보면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던 무관심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죽은 뒤에는 라자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비유는 단지 ‘부자는 벌받고 가난한 이는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묻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전통인 금식재와 금육재, 그리고 나눔의 실천과 깊이 연결됩니다. 금요일마다 지키는 금육재나 사순 시기의 단식은 단순히 고기를 안 먹거나 음식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느님께 다시 드리고, 절제를 통해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실제로 도울 수 있도록 이끄는 신앙 훈련입니다.

우리 본당에서도 절제한 만큼을 모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하는 방식입니다. 절제와 나눔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나눔 없는 절제는 공허하고, 절제 없는 나눔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복음 속 부자는 죽은 뒤에야 깨닫고 후회했지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 속의 ‘라자로’는 누구입니까? 나는 내 시간과 물질, 마음을 얼마나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행동하라.” 작은 절제와 정성스런 나눔을 통해, 우리도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 ‘미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미사 중 성찬례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례사제는 마침 영광송을 바칩니다. 이 기도문은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기도문을 묵상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미사의 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성찬례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성찬례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행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시는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행위입니다. 이는 전례를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시키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전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찬례를 예식 지침에 따라 완벽하게 거행한다 하더라도, 그 예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식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양식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

우리는 미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만나고, 그분을 체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우리를 만남의 장으로 이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도무지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토대로 우리는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는 분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느님과 만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전교구 윤진우 세례자 요한 신부